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36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18,33-37)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18,33-37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대축일’이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매주일 복음을 통해 사랑과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그리고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묵상했다. 복음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한 끝에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 곧 세상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사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확신은 세상을 성화시키고 모든 피조물과 형상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관상하는 “내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한다. 하여 변화무쌍하고 우여곡절이 반복되는 인생살이에도 영원에 대한 지평 아래 내면의 평화를 지향하며 사는 은총을 누리며, 삶에서 도전받는 다양한 일들과 고통까지도 쇠신과 성숙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난 전에 먼저 빌라도 앞에 끌려가 심문과 재판 받으신다. 물론 빌라도는 정치적인 왕이다. 예수님께서서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은 의당 사회 정치적인 시각이다. 전통적인 제정일치의 유다 사회에 로마제국의 억압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게 했다. 유대인들이 공생활 초기에 예수님에게 바랐던 기대감이 통합적인 해방자의 모습과는 멀어졌기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서게 했다. 급기야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현세적 실망은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빈정거림 섞인 십자가의 죄명까지 붙여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드러났듯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이나 유대인들이 바라는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범위와 인간의 생각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왕으로 오셨음을 밝히신다. 세속적인 눈과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권세를 지닌 통치자의 모습을 한 예수님은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러 왔다고 하셨으며,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성기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셨다. 왕궁은 고사하고 당신의 머리 돌 곳조차 없을 만큼 가난한 분이셨으며,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무력한 분이셨다. 그분의 강생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 인간이 되셔서 성김과 가난과 십자가의 길이셨고, 당신의 부활로 그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신 진리의 길이셨다. 권세를 앞세우는 왕은 세상에 있지만,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신앙인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다.

참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와 사랑과 평화가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현세와 영원을 섭리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하며, 인간의 악행이 나은 온갖 부조리함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회복한다는 믿음과 실천에 있다. 결국 하느님 나라는 종말론적이면서도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해방과 평화를 향한 사랑의 삶이다. 늘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내 삶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하며, 보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의 또 한 해를 힘차게 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시는 소공동체의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영적 지혜와 생활의 축복이 가득하리라 믿는다.

(수원교구 11월소공동체지에서 발췌)

“마카베오기 하권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마카베오기 하권

저자

미상의 저자는 서문(2마카2,19-23)에서 이 책이 키레네 사람 야손이 쓴 다섯 권의 책을 자신이 한 권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필 연대

기원전 2세기 중엽.

집필 동기

마카베오기 상권처럼 역사서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종교적인 것으로서, 뽀뽀이 흠어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훈계하기 위해 씌었습니다.

주요 내용

성전의 정화와 재 봉헌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두 편의 안부 편지(2마카1,1-2,18)에 이어 이 책의 전반부(2마카3-7장)는 세속화된 대사제들의 배반과 유대인들에 대한 안티오코스의 그리스화 운동과 박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벌과 율법에 충실한 엘아자르와 일곱 형제의 순교 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2마카8-15장)는 마카베오기 상권3-7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유다 마카베오 가문의 항전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순교의 고귀함(2마카7장), 부활에 대한 믿음(2마카7,9.23.29)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2마카12,38-45) 등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영성을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공지사항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 이웃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맙시다.

-전례력으로 한해를 잘 마감하고 돌아오는 대림절을 준비합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루카 1,39-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

*저에게 행복이 무어나고 물어본다면 어릴 적 성탄 준비하느라 밤늦도록 툽밥난로 앞에 앉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 지는 법을...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기도하네...

D A Bm G Em A7



정수
현정
권준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G D Bm Em E7 A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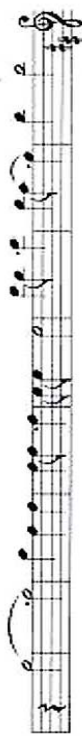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잊을루아

D A Bm G Bm A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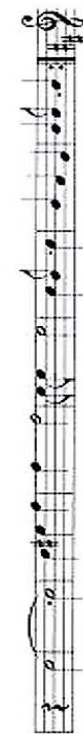
중-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G D Bm A7 D D7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G D Bm E7 A7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G D Bm A7 D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